

## 일본 엔고와 대일 교역환경 변화

(2011.9.30)

### [목 차]

요 약 .....	1
I. 엔화 환율 동향 및 일본 경제 현황 .....	2
II. 일본정부의 대응 .....	7
1. 일본정부의 엔고 대책 / 7	
2. 정부의 엔고 대책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 / 9	
III. 설문을 통해 본 일본 산업계 반응 .....	10
IV. 한·일 교역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	14
1. 한·일 교역변화 및 수출여건 분석 / 14	
2.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 / 15	
첨 부 1. 일본 경제산업성 제조업체 설문 조사 .....	17
첨 부 2. 일본 M&A 센터 상장기업 설문 조사 .....	21

작성 : 도쿄무역관 임지훈 과장(fantasia@kotra.or.kr)

일본팀 김경운 (kwkim0630@kotra.or.kr)

감수 : 일본팀 김성환 팀장(sunghwan@kotra.or.kr)

---

## 요 약

### □ 이례적 엔고 현상 지속

- 엔·달러 환율은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불안정한 추이를 보이며 9월 중 1달러 76엔대에 이르는 엔화 초강세를 지속
-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엔화 자산에 대한 투기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

### □ 엔화 강세로 해외조달 및 생산거점 이전

- 엔화 강세에 따른 제조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코스트 절감을 위한 해외 조달 및 생산거점 이동 활발

### □ 노다정권의 9월 엔고대책 중간보고 발표

- 고용대책기금과 기업의 국내입지 보조금 확충, 자원 확보와 해외기업 매수를 위한 자금공급 등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한 다각적 정책 마련

### □ 엔고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본 산업계 반응

- 자동차, 전자, 기계 등 수출품목 제조업계는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를 우려하여 해외부품 조달 및 현지 생산을 검토 중
- 부품 업계는 수출보다 수입비중이 높아 엔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경쟁과열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해외조달을 고려
- 소비재 유통업계는 지진이후 수입이 증가한 상황에서 엔고가 유리하게 작용

### □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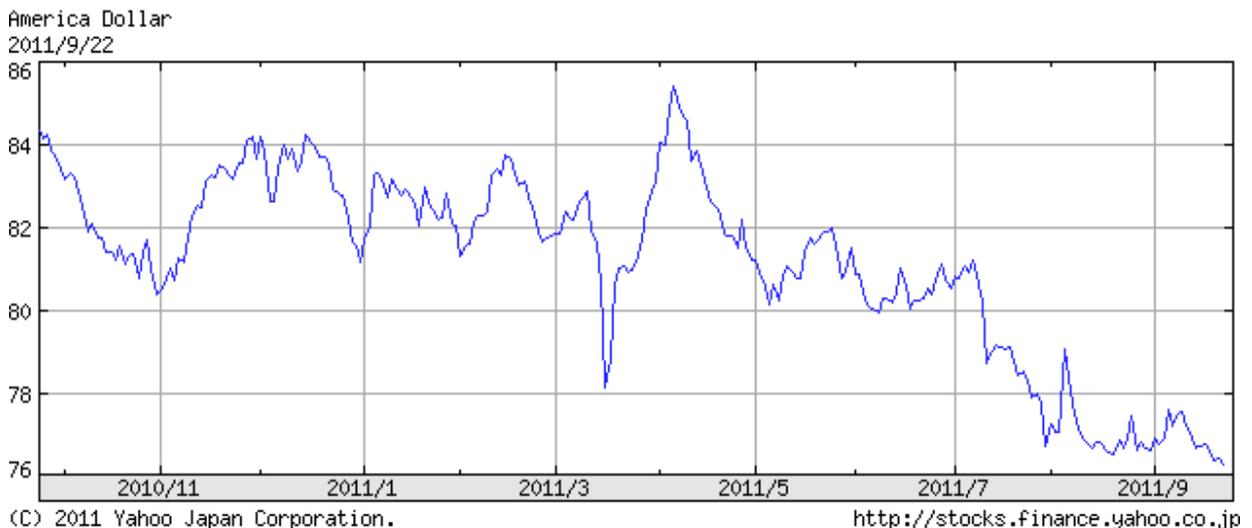
- 엔고와 지진 복구 수요를 활용한 대일수출 마케팅 전개
-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
- 일본기업의 해외 투자 수요 적극 유치

# I 엔화 환율 동향 및 일본 경제 현황

## 1. 엔화 환율 동향

- 엔화 강세는 2010년부터 심화되기 시작하여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 3월 17일 1달러 76.25엔을 기록
- 3월 18일 G7국가 공동합의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과 8월 4일 일본은행에서 4조 5000억엔 규모의 달러매입 등, 시장개입을 단행했으나 일시적 약세에 그침
- 이후 엔·달러 환율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국가 재정위기로 인해 8월 19일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달러 75.95엔까지 상승
- 9월중 엔·달러 환율은 1달러 76엔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엔고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무성은 9월 20일 엔고 종합대책 중간보고를 발표

[엔화 환율 추이]



\* 자료원 : 야후 파이낸스

- 2010년에는 일본의 경상수지 확대와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환율 대응이 엔화 강세의 원인이 되었던 것에 비해, 2011년에는 지진 피해로 인한 경상수지 하락, 내수경기 불안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대외적 요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미국과 유럽의 지속되는 경기침체 불안으로 인해 안전자산으로서 엔화의 수요가 증가하여 정부의 시장개입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엔화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 일본경제 현황

### □ 경제성장률

- 연초 일본정부는 경제성장률(실질GDP)을 1.5%로 예상하였으나, 지진 발생의 영향에 따른 1~2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8월 12일 경제성장률 예상수치를 0.5%로 하향조정
- 발표 시점으로 보아 지진피해 복구상황 뿐만 아니라, 소버린 쇼크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엔화 강세의 장기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 산업 생산

- 지진피해로 무역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
- 조속한 피해시설 복구 작업과 함께 하반기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로 수출품목 제조업체는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음

## □ 고용

- 일본의 완전실업률은 2009년부터 5%대에 진입 후 2010년 말부터 4% 후반대로 떨어지면서 2011년 7월 기준 4.7%를 기록
- 당분간 일본 내수경제는 눈에 띄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의 실업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엔화 강세로 인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가속화되면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 개인 소비

- 지진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반영하여 1~2분기 개인소비 및 서비스 수지는 마이너스를 기록
- 반면, 3분기부터는 그동안 생산차질로 재고부족을 겪었던 자동차 판매와 절전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소비가 확대될 전망
- 현재의 엔화 강세는 일본 소비자에게 해외여행을 포함한 서비스 업계 소비를 활성화 시킬 요인으로도 작용

## □ 기업 투자

- 7월 기준 대외 직접투자와 대내 직접투자는 각각 1조 320억엔, 726억엔으로 일본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로 인한 유출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음
- 특히 대외 직접투자 규모는 4월 이후부터 증가하여, 지진피해, 전력난, 엔고 등의 국내 경영환경 악화가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 한 것으로 분석

### [일본 경제연구소의 경제 전망]

○ 다이와 증권 부설 경제연구소

- ▲원자력 발전 정지에 따른 전력부족과 생산의 침체 ▲세계적인 금융시장 혼란에서 오는 영향 ▲엔화 강세를 현 일본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일본 실질GDP가 1%이상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나, 대외요인이 큰 만큼 세계정부가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장기불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
- 2011년 하반기 이후 지진 피해복구 수요로 경기가 회복 궤도로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2012년 실질GDP는 2.6%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미즈호은행 종합연구소

-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2011~201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를 밑돌 것으로 전망
- 미국과 유럽의 성장 둔화 및 긴축재정은 곧 세계 수출시장의 축소를 의미하며, 일본 역시 수출 감소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저조할 것으로 보임

## [일본경제 전망 총괄표]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3/A	4/A	1/A	2/A	3/A	4/A	1/A	2/A
실질GDP	1.0	▲0.6	▲0.9	▲0.5	1.8	0.6	0.5	0.4
국내수요	1.3	▲0.6	▲0.7	0.2	0.9	0.5	0.5	0.4
민간수요	1.7	▲0.6	▲1.2	▲0.1	1.1	0.5	0.6	0.4
개인소비	0.9	▲0.9	▲0.6	▲0.0	0.5	0.1	0.4	0.1
주택투자	2.1	2.8	0.2	▲1.8	1.6	2.1	▲3.0	1.2
설비투자	1.1	0.1	▲1.4	▲0.9	2.5	1.5	0.8	1.2
재고투자	0.5	0.0	▲0.3	0.1	0.1	0.1	0.2	0.0
공공수요	▲0.1	▲0.6	0.6	1.2	0.3	0.3	0.2	0.2
정부소비	0.4	0.4	0.8	0.6	0.2	0.2	0.1	0.2
공공투자	▲2.2	▲5.8	▲0.7	4.3	0.9	0.9	0.8	0.6
국외수요	▲0.2	▲0.1	▲0.2	▲0.8	0.8	0.1	▲0.1	0.0
수출	0.7	▲1.0	0.0	▲4.9	7.2	2.1	0.4	1.0
수입	2.6	▲0.6	1.4	▲0.0	1.6	1.5	0.9	0.7

주) 전기대비 증감률, 실질기준 및 단순%

2011년 3/4분기 이후는 예상수치

\* 자료원 : 일본 내각부 분기별 GDP 속보 2차 속보치('11.9)

미즈호종합연구소 2011-12 내외경제전망('11.9)

## 1. 일본정부의 엔고 대책

### □ 외환시장 개입

- 일본 재무성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9일 한 달간 엔고를 진정시키기 위해 총 4조 5129억엔 규모의 시장개입이 실시됨
  - 시장개입 일시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일본정부는 미국채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8월 4일 엔고 방지를 위해 단독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본 시장 관계자들도 정부의 시장개입은 8월 4일 하루였다고 분석하고 있음
  - 단일 기준 시장개입 금액으로는 2010년 9월 15일 실시한 2조 1249억엔 매도와 역으로 엔화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 1998년 4월 10일 실시한 2조 6201억엔 매입 금액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
  - 반면, 지진 발생 직후 G7 공동합의를 통한 시장개입과 달리, 미국과 유럽의 경제 불안에서 실시된 단독개입인 만큼 엔화 강세의 큰 흐름을 막지 못하고, 효과도 한정적이었음
- 이후 일본의 엔화 강세에 대하여 스위스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유사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9월 7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완화정책을 내놓지 않았음
  - 스위스 정부에 비해 일본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러웠으나, 스위스의 GDP 규모는 일본의 10% 수준임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영향력과 통화정책에 양국 간 차이가 있음

□ 노다정권의 엔고 대책

- 일본정부는 9월 20일 엔화 강세에 따른 경제현황 검토회의를 개최, 엔고 대책 중간보고를 발표
  - 노다 총리는 산업공동화(産業空洞化)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엔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 표명
  - 중간보고에서는 각종 경제대책과 함께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포함되어 있음
  - 이번 중간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중순에 국회제출 예정인 2011년 제3차 보정예산안에 포함될 전망

[일본정부의 엔고 대책 개요]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환시장의 변동 주시, 필요시에는 단호한 조치 시행</li> <li>• 일본은행의 시기적절하고 결단력 있는 금융정책 운영을 기대</li> </ul>
구체적 방안	( 1 ) 엔고에 의한 피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충</li> <li>• 전국 각지에 설치한 고용대책 기금 증가</li> <li>• 고용조절 조성금의 요건 완화</li> </ul>
	( 2 ) 강인한 경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대상 국내입지 보조금 확충</li> <li>• 주택 에코포인트 제도 시행</li> </ul>
	( 3 ) 엔고 메리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 확보 및 해외기업 매수를 위한 자금 지원</li> <li>• 해외고급인력 수용</li> </ul>

\* 자료 : 일본 내각부

- 「자원 확보 및 해외기업 매수를 위한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1000억달러 규모의 특별회계 자금을 활용한 융자펀드 창설 정책이 주목을 받음

- 현재의 엔고 상황을 활용하여 해외기업을 기존보다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에 일본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
- 기업의 해외진출 장려를 통한 엔화 매도, 달러 매입의 수요를 발생시켜 엔화 강세가 진정됨과 더불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기대

## 2. 정부의 엔고 대책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

- 산업계는 노다정권 출범 이후 추진되는 엔고대책이 일시적 환율대응으로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산업부흥 대책으로 연장될 것을 기대
- 2009년 하토야마 총리를 시작으로 자민당 대신 여당으로 자리 잡은 민주당 정권은 지금까지 일본 산업계와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지 못했음
- 반면, 기존 총리들과 달리 협조노선을 추진하는 노다정권의 정책실행에 대해 산업계는 기대를 거는 분위기임
- 요네쿠라 히로마사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엔고를 막기 위한 일본정부의 단독개입도 필요하지만, M&A 유도를 위한 저금리 용자와 같이 기업들이 환율변동의 덜 영향을 받으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
- 또한 “현재 지진피해와 원전사고 수습이 가장 우선시 되며, 재정건전성 회복, 사회보장 개혁이나 해외 주요 경제권과 FTA 체결 등도 중요한 과제다.”라는 입장을 밝힘

III

**설문을 통해 본 일본 산업계 반응**

□ KOTRA는 일본 주요 업계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 엔화 강세의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품목별로 상이한 환율 대응방안을 조사함

-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수출품목 제조업계의 경우 당초 1달러 80엔대로 전망했던 반면, 현재의 1달러 70엔대의 상황은 수출 부진과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함
- 자동차, 전자, 기계 분야 제조기업은 엔화 강세가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해외부품 조달 및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T사 : 자동차 생산, 판매

- 지진으로 일부 생산시설과 부품 조달에 피해, 계획 정전과 엔고로 인해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움
- 타 완성차업체와 부품공통화를 통한 비용절감, 동북지역 생산 자회사 통합, 신흥시장 판매 주력 등 다방면 대책 수립 중

▲ K사 : 산업기계

- 해외거래 시 기존 달러 거래를 엔화로 변경 예정
- 한국산 제품은 기술 및 품질 면에서 뛰어나, 아웃 소싱을 넘어 공동R&D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희망

▲ O사 : 전자부품, 반도체, 의료기기 생산, 판매

- 소버린 쇼크 후 상황 검토 중
- 수입 확대계획에는 변화가 없으나, 해외 생산거점과 바이어가 많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T사 : 통신기기류 생산

- 내수시장 축소와 발주처의 비용절감 압력으로 해외조달이 불가피한 상황
- 한국산 금형제품 발주 검토 중

- 플랜트, 시스템 분야 기업은 엔화 강세가 해외 수주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는 한편, 해외 부품 수입 확대에 비용 절감방안을 모색

#### ▲ D사 : PCB 제조 장치

- 1달러 85엔 환율이 이상적이며, 국내 제조업은 1달러 90엔대 환율이 안정적인 환경이나, 엔고는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
- 현재와 같은 엔고 수준에서 해외 수주 경쟁력 저하가 우려
- 한국에서 시스템 장치를 수입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음

#### ▲ H사 : 환경장치, 플랜트, 정밀기계, 건설기계 생산

- 전부터 엔고 대응책으로 해외조달 확대를 추진해옴
- 한국산 수입시 달러로 거래하고 있지만, 납품처 요청에 의한 엔화 거래도 증가

#### ▲ H사 : 생산 시스템, 산업용 로봇 생산

- 한국산 가공부품을 대량 수입하고 있으며, 엔고 장기화시 수입물량 증대 계획
- 반도체 등 고품질이 요구되는 부품은 타 국가에 비해 한국산 선호

- 부품소재 분야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보다는 내수시장 납품에 주력하고 있어, 엔화 강세에 따른 자재 수입비용 절감효과를 보고 있음

- 그러나 지진피해 시 겪었던 불안정한 공급 및 내수경기 침체가 동종업계 내 경쟁과열을 초래하여 자재의 해외조달을 검토하고 있음

#### ▲ T사 : 소형, 정밀 부품 가공

- 엔고와 구미지역 경제위기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초정밀부품 가공 등 기술경쟁력을 가진 품목이 있어 현재까지는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수주 중

- 제조비용 상승 압력도 있어 단순가공품이나 납기일이 유연한 제품군은 해외발주 적극 검토

▲ K사 : 선박용 부품 생산

- 수출보다 수입비중이 높아, 엔고로 인한 수입원가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음
- 특히 가격 경쟁력이 좋은 한국산 LED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

▲ D사 : 알루미늄 사출 부품

- 엔고의 영향으로 해외 조달을 적극 추진 중이며, 조달 품목 및 수량 확대를 검토 중
- 국내 소비의 불안 요소가 있지만, 완성차업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부품가격 재조정 중이므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조달처 발굴 예정

▲ M사 : 전선, 튜브, 합성수지 성형품, 건설기 부품 생산

- 경제 불황과 엔고 지속으로 금년 수출물량 감소
- 지진 피해로 국내 제품공급이 불안정하여 해외조달 확대
- 현재 한국산 수지제품, 전선 등의 공급선 확보를 위해 업체접촉 중

▲ N사 : 살균 장치, 디젤 발전기, 태양광 발전 시스템, 나노소재 생산

- 수출 관련 매출액이 낮고, 수입 비중이 높아 현 환율 상황이 구매비용을 절감하는 이점으로 작용

▲ K사 : 펌프 제조

- 내수시장과 공공사업 수요에 집중했으나, 동종업계 해외수주가 급감하는 관계로 국내시장 경쟁 과열, 가격 경쟁으로 이어짐
- 비용절감을 위한 해외조달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베어링, 구동장치 등 핵심 부품도 한국산 조달을 계획 중

▲ T사 : 밸브 제조

- 내수경기 침체로 수주경쟁이 치열해져, 해외시장 진출 확대에 영업 인력 집중
- 가격경쟁력 높이기 위해 한국산 부품 조달도 확대

- 건설 분야에서는 엔화 강세가 자재 수입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오지만, 일본 경제 불황으로 건설 수요 자체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 N사 : 건축기자재
  - 엔고로 건축자재의 수입가격이 절감되어 이득이나,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 추세
  - 국내 신축건물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규모 발주 물량은 당분간 감소 예상
  
- 유통 분야는 유통 품목에 따라 반응이 다르지만, 생활소비재의 경우 지진피해로 인해 외국산 제품 수입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엔화 강세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 H사 : 식품, 생활용품, 잡화 유통
  -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엔고에 힘입어 물량 확대 계획
  
- ▲ C사 : 약품, 생활용품 유통
  - 안전성을 고려해 한국산 제품을 선호
  - 엔고의 영향으로 수입물량도 증가하고 있어 추가 수입을 위한 거래선 발굴 중
  
- ▲ C사 : 화장품, 건강식품 생산
  - 엔고로 인해 국내산 화장품 용기 공급을 줄이고 품질대비 비용절감이 가능한 한국산 수입량 증대
  
- ▲ S사 : 종합유통상사 (자동차 부품, 금속, 화학, 건설)
  - 엔고와 지진으로 국내 산업의 해외거점이 이동 중, 내수산업 축소로 유통구조도 변화할 전망
  - 자사 영업에 일부 영향을 주어 판매액 감소 예상

IV

**한·일 교역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1. 한·일 교역환경 변화 및 수출여건 분석**

□ 한·일 교역동향

-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중국, 미국에 이어 3위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품소재의 대일 수입이 이를 상쇄하여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음
- 올해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대일본 수입은 감소, 수출은 증가하는 반대 양상을 보이면서, 8월 기준 대일 수출금액은 258억 달러를 기록(전년 동기 대비 46%이상 상승)함에 따라 상반기 대일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

[ 최근의 대일 무역 현황 ]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 체	對日	비중	전 체	對日	비중	전 체	對日
2008	422,077	28,252	6.7	435,278	60,956	14.0	-13,267	-32,704
2009	363,534	21,771	5.9	323,085	49,428	15.3	40,449	-27,657
2010	466,384	28,176	6.0	425,212	64,296	15.1	41,172	-36,120
2011(1~8월)	368,834	25,850	7.0	347,838	46,137	13.3	20,996	-20,287

\* 자료원 : 무역협회

□ 수출여건

- 엔고지속으로 인해 일본시장에서 한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그동안 한국제품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한국제품의 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 특히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생활필수품 및 내수재 분야와 방산능 이슈에 민감한 식품류 등에서 한국제품은 품질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경쟁 우위를 갖고 있음
-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부족물자 긴급조달을 위하여 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규제 및 수입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유동적인 수입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기업의 대일 수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향후 엔고 장기화, 재정건전화 차원의 증세,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으로 일본 내수시장이 위축될 여지가 있어 대일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2.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

### □ 엔고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일수출 마케팅 전개

-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일본기업의 부품 아웃소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국 중소 부품소재 기업과 일본 대기업간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
-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된 소비재, 문화상품 수출확대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을 비롯한 유통망 진출 강화
- 신재생에너지, 절전시장 등 대지진 피해복구의 일환으로 창출된 신규수요에 적극적인 대응

### □ 대일 수입비용 상승에 따른 부품소재 국산화 노력

- 대일 무역적자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는 엔고에 따른 수입비용 상승으로 대일 무역역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큼

-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에 대한 R&D 투자로 우리기업의 대일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비용 절감과 환율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 경쟁력 육성이 필요

#### □ 일본기업의 해외 투자수요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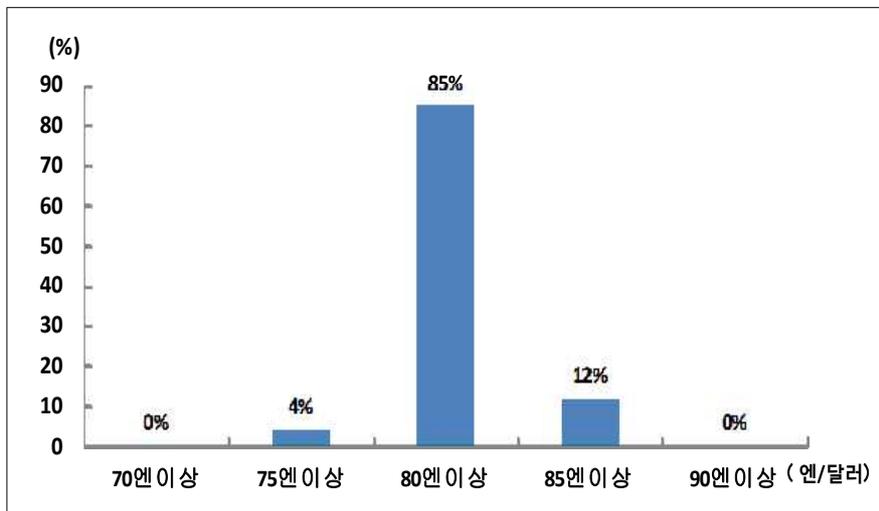
- 생산거점 해외이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필요
  - 최근 대만의 경우 9월 대만-일본 투자협의를 체결, 자국 원자재 및 부품 강제 사용 폐지, 내국민 대우 등 투자촉진 및 자유화 환경을 조성
  - 대만 행정원 산하 투자유치 센터에 일본데스크 개설, 일본기업 맞춤형 투자유치를 지원
- 엔고를 계기로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 공동생산, 기술협력 사례가 늘고 있어,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 일본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조기술, 해외시장 공동 진출 등 양국 간 협력 확대 필요

첨부 1.

[일본 경제산업성 제조업계 설문 조사]

- 일본 경제산업성은 9월 7일 제조업 분야 대기업을 대상으로 현 엔고 현상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동 결과를 발표
-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당초 설정한 엔·달러 환율은 1달러 80엔대 전반이라고 대답한 비중이 50% 이상

[제조분야 대기업 당초 설정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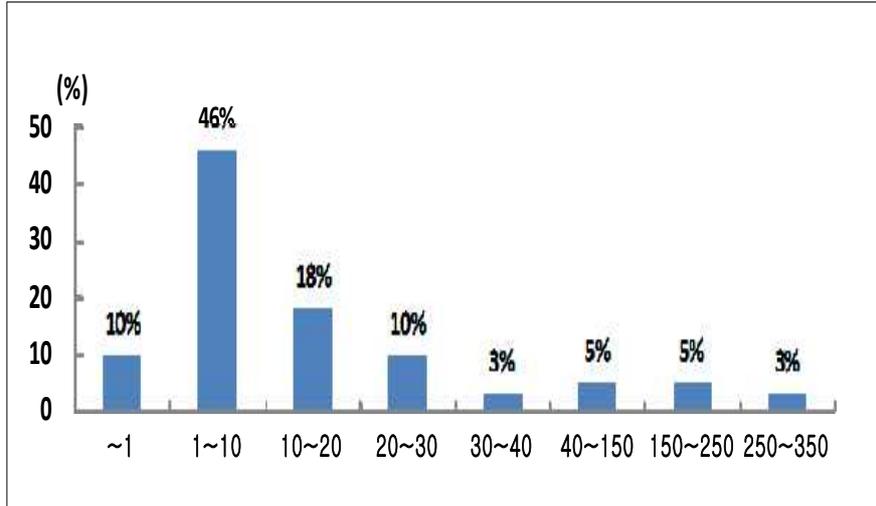


주1) 제조업 종사 대기업 52개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주2) 1달러 당 엔화 환율 기준

- 또한 엔·달러 환율에서 엔화 가치가 1엔 상승한 경우 영업이익의 감소액은 1억엔~10억엔 구간이 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엔화가치 1엔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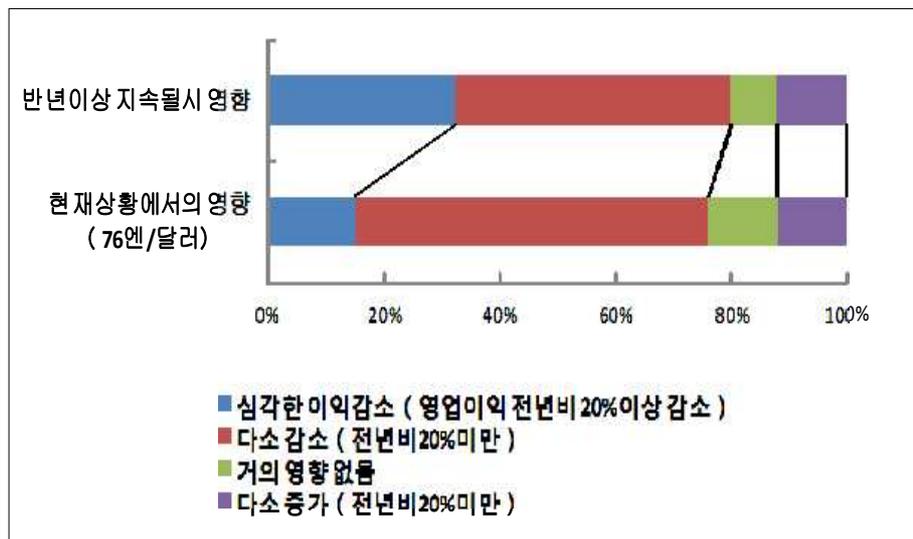


주1) 제조업 종사 대기업 39개사 설문조사 결과

주2) 감소액 단위는 억엔

- 엔고가 기업이익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 1달러 76엔의 상황에서 전체 기업의 15%가 심각한 이익감소가 발생하며, 현 상황이 6개월 이상 계속되면 전체의 32%가 심각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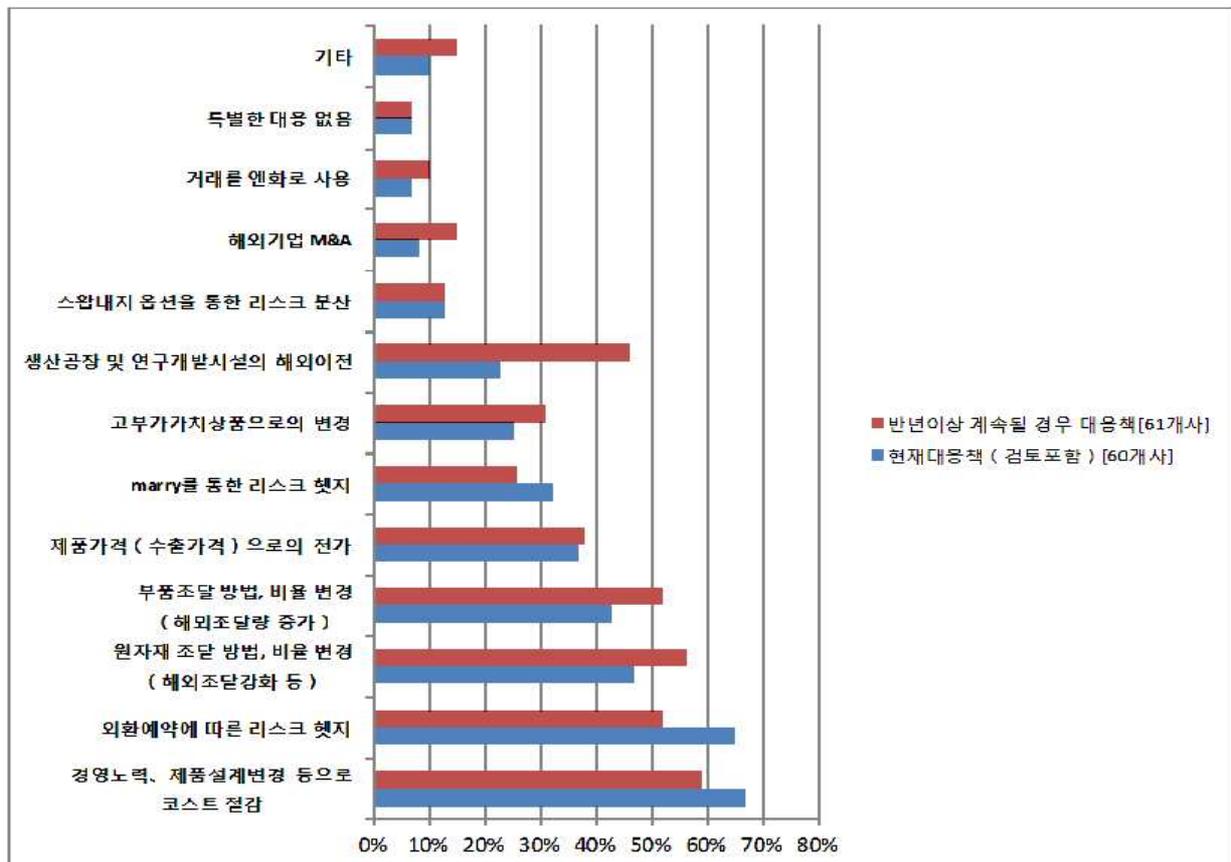
[엔고현상 장기화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



주) 제조업 종사 대기업 59개사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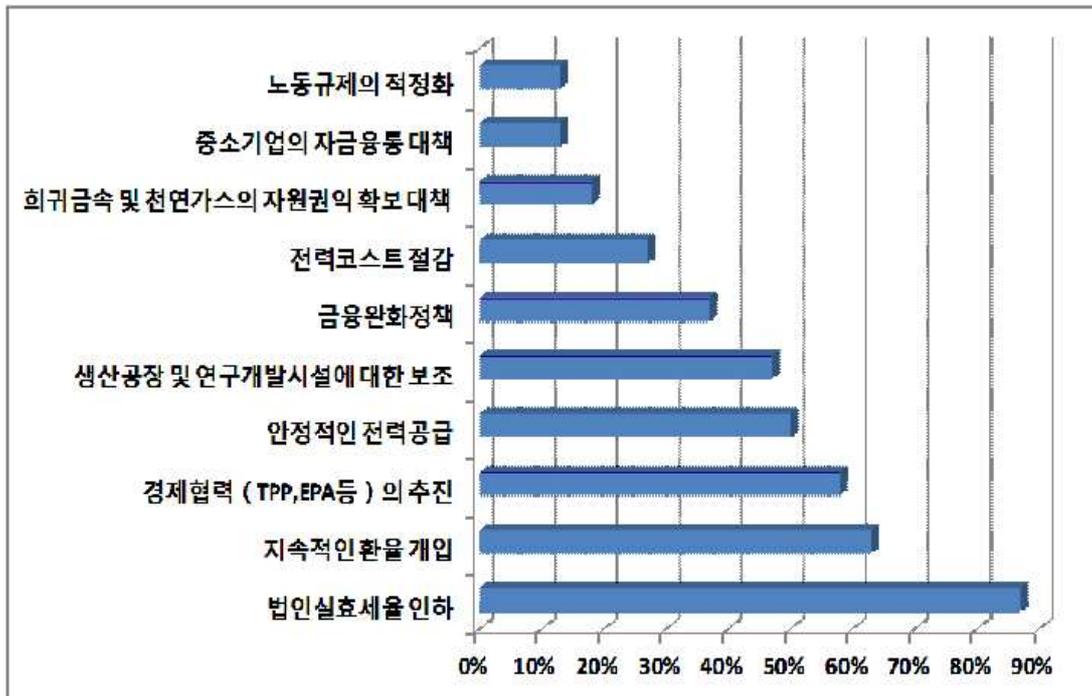
- 엔고현상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책으로는 경영노력, 제품설계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이 67%로 가장 많았고 환율 예약을 이용한 리스크 회피가 65%를 차지
- 설문 기업의 50% 이상이 현 1달러 76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될 시 해외로부터의 원자재나 부품의 수입량을 증가시킨다고 대답
- 또한 전체의 46%가 생산 공장 및 R&D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대답하여, 해외시장을 이용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분석
- 심각한 엔고시대에 접어들 우려와 함께 일본기업들은 사업체제의 변환을 피할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

[엔고상황 해결을 위한 기업 대응책]



- 다른 한편, 국내에서 사업영위에 어려움을 느끼는 일본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음
- 해외진출 및 투자에 대한 권유를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18%의 기업들이 투자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주로 중국과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 받았다고 응답
- 기업들이 기대하는 정부대응책으로는 법인실효세율 인하, 환율개입, 경제협력 추진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으며, 이는 지진피해와 엔화 강세 외에도 일본 경영환경 자체를 개선하길 희망하는 의사로 보임
- 일본의 법인실효세율은 40.7%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기업의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일본기업이 정부에게 기대하는 엔고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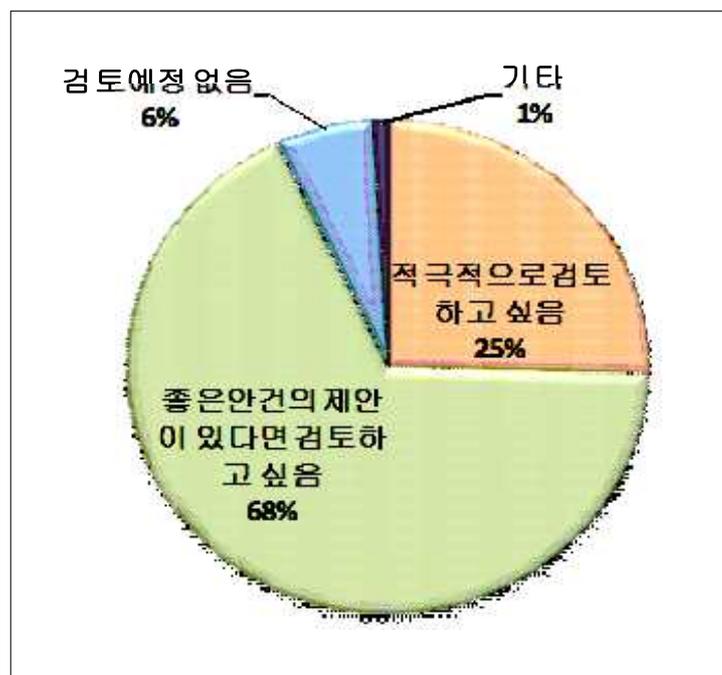
주) 제조업 종사 대기업 60개사 설문조사 결과 (복수응답 포함)

## 첨부 2

### [일본 M&A 센터 상장기업 설문 조사]

- 중견 및 중소기업의 M&A 중개를 담당하는 일본 M&A 센터는 7~8월 일본 상장기업 231개사를 대상으로 M&A에 대한 의식을 조사, 동 결과를 발표
  - 설문 결과에 의하면 최근 엔화 강세와 함께 상장기업들의 M&A에 대한 의욕이 높아지고 있으며 작년대비 수치도 상승하였음
- 향후 M&A 전략에 대해 전체의 92.9%가 “적극적으로 검토 희망”, “좋은 안건이 있다면 검토 희망” 이라고 대답

[일본 상장기업의 향후 M&A 실시 의향]



- 동일본 대지진 직후 일시적으로 M&A 의욕이 감소했던 부분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역으로 엔화 강세의 이점을 활용하여, M&A를 통한 해외진출을 노리거나 자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임

Kotra Executive Brief 11-021

일본 엔高 대응정책과 산업별  
반응으로 보는 교역변화 전망

발행인 | 홍석우  
편집인 | 박진형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11년 9월 30일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